

문예기금 지역 편중 심각

입력시간 : 2009. 10.07. 00:00

서갑원 “서울 지원액 50%·예산 전남 19배”

최근 3년간 문예기금 지역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지원된 금액이 50%를 넘고 서울에 산은 전남의 19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서갑원(순천시)의원이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문예기금 지역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집행액 1,439억 중에서 서울에 절반이 넘는 785억(54.5%)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154억(10.7%), 부산 56억(3.9%), 대구 54억(3.7%), 전남 40억(2.8%), 광주 26억(1.8%)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전국 공통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집행의 70% 가량이 서울로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예기금 지원액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37억), 국제예술교류지원(65억), 창의적 예술지원(125억), 예술창조활동지원(63억),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38억), 새로운 예술 및 인력육성(47억) 등이 서울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에 쓰이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사업마저도 서울에 가장 많은 15억이 지원될 정도로 서울 편중 지원은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이 1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조성(북권)11억6,0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6억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사업지역순회지원이 8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소외지역대상문화나눔(북권) 5억1,100만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4억600만원 등이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은 “이러한 지역 편파적 지원은 문예기금이 아직까지도 지역의 문화발전에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문화의 서울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발전 및 문화 다양성보호 차원에서 지역으로 문예기금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병운 기자 서울=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전남매일\(jndn.com\)](http://www.jndn.com)(http://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jndn.com